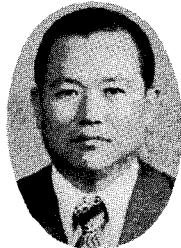


양축가의 번영이 우리의

번영이라는 신념 속에



〈김재수 사장〉

부산 경남지부 허태수 총무와 같이 부산 동래구 연산동 437-1에 위치한 한성사료(대표 김재수, 도성기)를 찾은 것은 긴 겨울 가뭄 끝에 봄비가 대지를 축축히 적시는 날이 있다.

정문을 들어서니 대형트럭에 사료적재 작업이 한창이다. 마침 작업현장에 서 있던 김창호 기획과장이 알아보고 반갑게 악수를 청한다.

..... 양축가를 위한 제품생산이 기업을 살려

사무실에 올라가 김재수 사장과 인사를 나눈 후 한성사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다.

김재수 사장은 1968년 12월 현 부지에 공장을 세우고 사료생산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축산의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사명감과 한성사료가 개인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축산인의 기업이라는 신념과 양축가의 번영이 결국 「너와 나」 나아가서 「우리」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사업을 이끌어 왔음을 피력하면서 이러한 사명감과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경영자는 단순한 상인에 지나지 않는것이 아니겠냐고 되묻고 양축가를 위한 제품 생산을 근본자세로 삼을 때, 때로는 기업이 경영수지상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러한 자세가 결국 기업에 더 큰 이득을 가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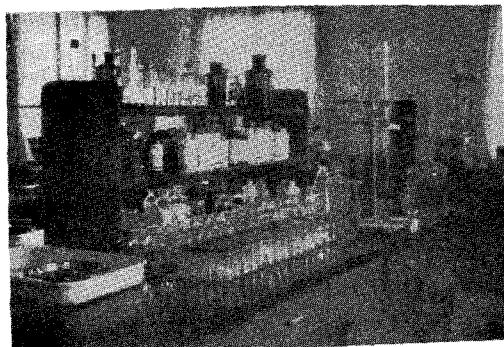
발전 하는 기업

— 한성사료를 찾아서 —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로 축산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힘주어 말한다.

..... 요즈음은 경영상의 적자를 감수

특히 요즈음과 같이 단백질원료의 구득난과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사료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성사료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윤폭을 축소시켜 왔으며 요즈음은 경영자로서 최소한도 한성사료 종업원의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축가가 만족할 수 있는 사료를 제조하는데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실정을 얘기한다.



〈한성사료의 실험실 전경〉

사료가격은 현실화되어야 바람직

또한 김재수사장은 현 사료업계의 실정과 사료품질문제에 대해, 예를 들어 kg당 100원짜리 사료를 먹여 산란율이 70~80% 되는 것과 120원짜리 사료로 산란율을 90%로 높이는 것 중 외국에서 대부분의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현 상황에서 어느 쪽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정부당국이 사료 가격을 현실화하므로서 사료공장들이 정당하게 품질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축산이 하루 빨리 영세 성을 탈피해야 할 것이고, 특히 축산물의 유통이 개선되므로서 축산의 발전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바램을 이야기하면서 축산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사료업계의 진정한 발전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고객들의 신뢰에 책임감 느껴

한성의 자랑을 물자, 「양축가들이 한성의 상표를 믿고 꾸준히 사료를 이용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고객들의 기대와 신뢰가 항상 큰 부담과 책임감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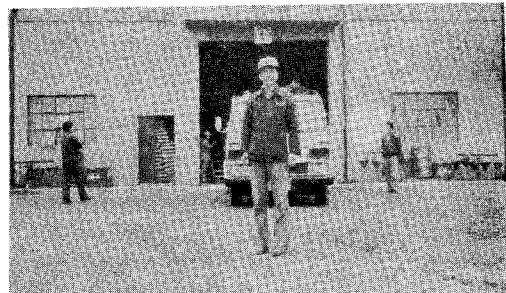
그리고 한성사료의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일을 찾아 열심히 뛰므로서 고객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 큰 자랑이라고 한다.

장학금 지급을 계획

앞으로의 계획을 물자 이렇게 한성사료가 성장한 것은 궁극적으로 항상 뒤를 밀어준 양축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에 지금과 같은 때에는 사료의 품질이 마진에 우선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당분간 경영상의 출혈을 감수하면서라도 양축가에게 봉사할 것이며 지난 2월달에 완공된 강당에서 분기

별로 양축가들을 위한 강습회를 개최할 것이며 또한 종업원을 위한 녹지제도로서 사정이 호전되는대로 가능하다면 올해 2학기부터 종업원들의 자제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구상중이고, 원가절감을 위해 원료를 저장할 사이로를 설치할 것이며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직원들과 협의하는 시스템을 조직해 경영개선에 역점을 두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대답한다.

사장실을 나와 방수근 영업부장과 김창호 기획과장에게서 공장의 현황을 듣고 공장내부를 돌아 보았다.



(공장건물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창호 과장)

양질의 원료를 구입하는데 역점

현재 월 3600~4000톤의 판매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 꾸준한 생산량상승을 보여 최근 50마력짜리 고성능 햄머를 설치하고 60평짜리 창고를 증설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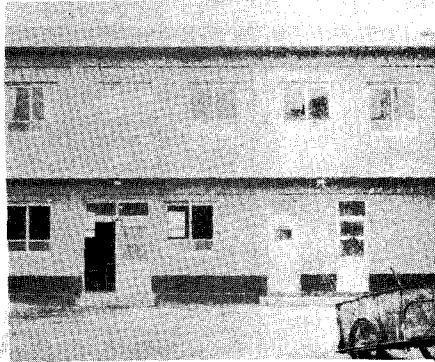
또한 선진, 고려등 2개처의 어분 생산공장과 계약을 맺어 양질의 어분을 공급받는 것 큰 이점이라고 한다.

앞서 양질의 원료를 구입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으며 아프터 서비스를 위해 많은 시간과 경비를 할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축가들과의 대화에서 많은것을 얻어

대구, 경산, 경주, 마산, 삼천포에 출장소를 두고 있어 이 지역의 사료공급을 커버하고 있으며

□ 기업탐방 □



〈새로 신축된 식당 사워장 휴게실 및 실험실이 있는 건물전경〉

매월 1회씩 본사에서 회의를 갖고 판매전략 논의와 정보교환, 고객에 대한 서비스문제를 토의한다고 한다.

평소에도 사장이하 영업부 직원들이 양축가들과 대화를 갖도록 애쓰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얻는 것이 많다고 한다.

또한 1년에 2번 고객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야유회를 갖는다고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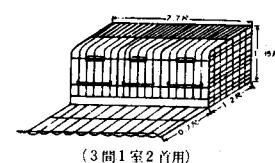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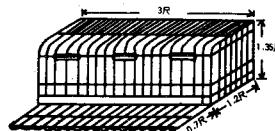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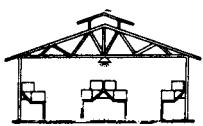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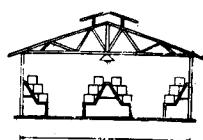
또한 종업원들의 복지위생을 위해 지난 3월에 완공했다는 2층휴게실은 아직도 페인트 냄새가 났지만 아늑한 분위기였으며 오락시설을 다양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하며 1층의 식당, 샤워장은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또한 작년말 노후원 실험시설을 일부교체하여 보다 완벽한 실험에 만전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공장시설을 돌아본후 작별인사를 나누고 정문을 나서면서 사료업체와 축산업체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번영을 위한 한결음 한결음을 같이 내닫아야 된다는 것과 이러한 전진을 위한 성실한 기업인들의 노고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임을 절실히 느꼈다.

〈취재 : 김종호〉

完全自動 亞鉛멕기 · 自動스포이트용접에 의한 實用的인 케-지



호남에도
등장

광주 케이지

주소: 전남 광주시 동구 우산동 478번지
전화: 5-1273